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양상

이 현 흥*

차 례

- | | |
|-----------------------------|----------------------------|
| 1. 들머리 | 3.2. 노동 가치의 중시와 대조적 결말 |
| 2. 서술방식의 변모와 구연의 기능 | 3.3. 공동체 의식의 강조와 집단 행복의 추구 |
| 2.1. 삽입가요의 개입과 연행성 | 3.4. 경험현실적 논리와 자력해결의 서사구조 |
| 2.2. 속담의 활용과 의미 강화 | 4. 마무리 |
| 3.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부각과 서사 구조의 변개 | |
| 3.1. 지배계급 비판과 극단적 대립 구도의 설정 | |

1. 들머리

중국 조선족의 역사는 매우 오래다.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의 아득한 옛적 일은 접어 두고라도, 조선시대에만 해도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주민들은 경작자 없이 방치된 변경 지역의 광막한 평원을 드나들면서 소규모의 경작을 통해 식량을 거둬들이곤 하였다. 이같은 사정은 저쪽도 마찬가지로여서 소위 변경의 여진족들이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토에 드나들면서 모피 등 그들의 생산품으로 밀무역을 하는가 하면, 소규모 집단으로 노략질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을 일삼기도 했던 것이다.

고려말·조선 전기에 행해졌던 변경지역의 이같은 왕래 사실들은 부정기적·일시적인 것이어서 영구적 이주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 민족이 만주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 역사는 19세기 중반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어서 일제의 조선 강점 및 만주 점령으로 중국 조선족 동포의 숫자는 급격히 증대된다. 이같은 역사적 운명을 지닌 중국 조선족이기에 그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토로 만들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적 특성을 가꾸어 왔다. 중국 조선족의 문화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¹⁾ 여기서는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의 문헌정착본을 중심으로 그 변이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²⁾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려면, 먼저 현지의 구전설화를 채록하여 문헌정착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우선, 중국에서 간행된 구전설화집의 주요 구술자들 중에서 면접 가능한 생존자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생존해 있는 분들이 몇몇 있다 하더라도 저들의 정치 사회적 여건상 외국인인 우리들로서는 이들을 현지에서 직접 만나 설화를 채록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의 하나로 필자는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 자료³⁾를 최대한 수집한 후에, 이들 설화와 『임석재 전집』에

1)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통과 변혁'이라는 대주제 하에 진행되는 일련의 연구에서 이같은 사정이 어느정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문학사, 설화, 민요, 시가전통, 소설사, 비평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문학논총』 제16집(한국문화회, 1995), 3~139쪽을 참조.

2) 이 연구는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술전통과 이데올로기 지향성」(앞의 책, 31~56쪽)에 이은 필자의 중국 조선족 설화 관련 두 번째 논문이다.

3) 여기서는 주로 김선평 편 『조선족 구비문학총서』(민속원, 1991)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책은 총 21권이며 설화는 1권에서 16권까지인데, 이 총서에 수록된 중국 현지 간행의 작품집은 설화만도 31권이다. 이 총서 이외에 필자가 활용한 자료는 중국 현지 간행 기록을 그대로 밝혀 적는다. 이들 자료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조선족 전설집 (민족출판사, 북경, 1991), ⑤ 인삼처녀 (연변인민출판사, 연길, 1962), ⑥ 천지의 맑은 물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62), ⑦ 용정전설 (연변

수록된 설화들⁴⁾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족 설화의 변이양상과 의미를 추론해 보기로 한다. 즉, 한국과 중국 양쪽의 설화집들에 두루 수록되고 있는 동일 유형의 설화를 추출하고 이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 검토함으로써 소기의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 설화집과 임석재 전집의 두 자료들에서⁵⁾ 추출할 수 있는 동일 유형의 설화 작품은 약 210여 종에 이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필자는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양상과 의미를 서술 방식의 변모와 구연의 기능,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부각과 서사구조의 변개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민출판사, 연변, 1993), ㉔ 천년묵은 호랑이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4), ㉕ 금망아지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4), ㉖ 삼돌이와 호랑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목단강, 1985), ㉗ 령리한 피돌이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1992), ㉘ 조선족 민간문예집 2권 (연변민간문예연구소 편, 1963), ㉙ 조선옛말 365컬래 1·2·3 권 (료녕인민출판사, 심양, 1985)

- 4) 총 12권의 이 전집에 수록된 설화는 192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 사이의 6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편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집 정리한 것들이다. 그는 이렇게 채집한 자료들을 지역별 유화별로 분류하여 근자에 12권의 책(평민사, 1987~1993)으로 묶어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중국 조선족의 설화 구술자와 비슷한 연배의 본토 거주 설화 구술자로부터 채록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특히, 1960년 이전에 채집된 설화의 구술자는 중국 조선족 설화 구술자와 그 설화적 잠재 역량을 공유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문헌정착 설화 자료와 임석재 전집에 수록된 채집 설화자료 중에서 같은 타입의 설화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그 나름의 방법적 타당성을 지닌다 하겠다.
- 5) 필자가 활용한 중국 조선족 설화집은 총 43권에 2180여 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임석재 전집은 총 12권에 3410여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에 공통으로 수록되고 있는 동일 유형 설화는 우리 민족 설화의 공약수적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다 하겠다. 말하자면, 이 공통 유형 설화 210여 종을 우리는 192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 설화 담당층, 그 중에서도 특히 구술자 자질 소유자가 지닌 심층적 잠재 역량의 일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서술방식의 변모와 구연의 기능

동일 유형의 설화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족 설화 중에는 삽입시가, 속담, 수수께끼 등과 함께 서술되는 작품이 본토의 설화에 비해 월등히 많다. 210여 종의 동일 유형 설화 중에서 삽입시가를 지닌 작품은 조선족 설화가 22종(6)임에 반해 본토 설화는 9종 뿐이며, 이야기 내용 중에 속담을 활용하여 전개되는 작품은 조선족 설화가 127종, 본토 설화는 20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국 조선족 설화가 지닌 서술 특성의 하나로 우리는 삽입시가와 속담의 개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삽입시가 및 속담의 개입으로 인한 설화 구연 기능의 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삽입가요의 개입과 연행성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설화집 중에서 삽입시가를 지니고 있는 작품은 총 110여 편이다. 이 중에서 작중인물의 노래가 구술자의 입을 빌어 표출되는 경우는 70여 편이고, 한시의 일부 구절이 삽입되는 경우는 40여 편이다. 한시의 일부 구절이 인용되는 경우는 국내 채록 설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노래를 지닌 70여 편(7) 작품 중에서 임석재 채록 설화와 중국 조선족 설화의 공통 유형 210 종에 해당되는 작품은 19종이다. 이 19종의 작품은 대부분 중국 조선족 설화이다. 이들과 같은 유형의 본토 설화 중에서 삽입가요를 지닌 작품은 <구렁덩덩새선비>, <부작방망이>(임.10, 107-109) 등의 9종이다.⁸⁾

6) 이 중에서 작중인물이 부르는 노래 형식의 작품은 19종, 한시의 한두 구절이 들어 있는 경우가 3종이다.

7) 설화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삽입가요를 지닌 작품을 헤아릴 때는 개별 작품의 편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공통 유형 설화 210 여종에서 삽입가요를 지닌 작품의 계산은 유형의 수를 기준으로 헤아린 것이다.

8) <구렁덩덩새선비> (임석재 전집 10권, 142-145쪽. 이하 임.10, 142-145로 표기)는 이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설화에는 언니들의 시샘으로 서방을 잃어버린 각자가 남편을 찾다 가며 부른 “은가락지 찌던 손에 추름작지 웬일인고 삼단걸은 이내 머리 삭발이란 웬일이요, 백설걸은 이내 발목에 발갸기가 웬일이요”라는 노래와, 새 쫓는 아이의 “후야딱딱 이놈으 새야 오늘날 까 묵고 내일일랑 까

수치상의 단순 비교로 보면 양자의 차이는 절반 정도에 이르지만 노래의 질량적 풍부성 내지는 작품 내적 기능으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이 같은 뚜렷한 차이의 원인으로서는 구술 현장에서의 연행성 강화 및 채집 정착자의 의도에 의한 개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시간에 중국 조선족 설화는 본토의 설화에 비해 삽입가요의 개입에 의한 개변의 모습이 현저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국 조선족 설화 중에서 삽입가요의 모습이 비교적 풍부한 작품을 동일 유형의 임석재 전집 소재 설화와 함께 짝지어 들면 다음과 같다.

㉑ <흑 페러 갔다가 흑 불이다>(임.6-2, 442-443) : <흑 뎨 이야기>(조.13-1, 9-24), ㉒ <말하는 남생이>(임.10, 105-107) :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조.2-1, 12-25), ㉓ <궁지에서 잘 빠져 나온 사람>(임.8, 215-216) : <지혜로 원이 되다>(조.7-1, 150-155), ㉔ <구렁덩덩새선비>(임.10, 142-145) : <봉선화>(조.2-2, 74-89), ㉕ <유산 세 가지>(임.4-3, 221-224) : <도라지 타령>(조.5-2, 113-117), ㉖ <우렁이에서 나온 각시>(임.7, 191-194) : <나비 한 쌍>(조.2-1, 269-277), ㉗ <바다물이 짠 이유>(임.3-1, 54-55) : <매돌>(조.2-1, 112-119), ㉘ <콩쥐팥쥐>(임.1, 133-139) : <종녀>(조.10-3, 1-8), ㉙ <틀린 답에도 급제하다>(임.8, 214-215) : <듣지>(조.5-2, 151-160), ㉚ <쌍둥형제 무용담>(임.2, 147-151) : <선동이와 후동이>(조.8-1, 423-477), ㉛ <음남음녀를 징치함>(임.9-1, 169-171) : <박어사 출도>(조.3, 95-100), ㉜ <살려 준 잉어의 보은>(임.1, 65-67) : <선량한 바위>(조.2-1, 41-48), ㉝ <피를 써서 장가 들다>(임.1, 313-314) : <짜개바지>(조.5-2, 58-67), ㉞ <꼭둑각시>(임.5, 164-166) : <꼭둑각시와 요술병>(조선옛말365컬레 3집, 367-373), ㉟ <팔이영감과 토끼>(임.7, 179-181) : <녹두영감>(조선옛말365컬레 2집, 267-271)

이들 작품⁹⁾에 나타나는 삽입가요는 크게 전기소설에 있어서의 삽입시처럼

묵지 마라 옥동동 새선배 장개 가느디 귀경하로 갈란다."라는 노래 두 편이 전한다. 전자는 각시의 개인적 소회를 드러내며, 후자는 남편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노래의 기능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의 노래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족 설화 <봉선화>(조.2-2, 74-89) 속의 삽입가요와는 그 양적 풍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능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 9) 작품집 '조.7-1', '임.6-2' 등은 조선족 설화의 경우에는 영인본 7권 속의 첫 번째 책이란 표시이며, 임석재 본의 경우에는 6권 속에 들어 있는 두 번째 지역(도 단위)의 작품집이란 표시이다 (이하 작품 인용의 경우는 모두 같음).

서사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적극적 기능의 경우와 함께, 서정적 분위기나 감정 교류 등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¹⁰⁾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㉔, ㉕, ㉖, ㉗, ㉘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등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1. ㉔는 소위 ‘혹 떼려다 혹 붙인’ 이야기이다. (임)은 “주위는 고요하고 즉 즉해즈스 심심도 해스 심심파죽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노래를 부르게 된 연유만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는 비슷한 이야기인 <혹 달린 두 늙은이>(조.2-2, 128-133)와 <혹을 떼려 갔다가 혹을 붙여 오다>(조.11-1, 432-43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래 가사의 소개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도깨비와 노인의 대화 그 자체가 아예 아홉 수의 노래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들 노래를 빼버리면 이 대목의 이야기는 인과적 개연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람의 몸에 붙은 살덩이를 떼어 내는 데 따르는 어색한 순간을 노래가락의 흥겨움에 묻어버림으로써 원활한 서사진행은 물론 감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효과도 아울러 거두고 있는 것이다. 노래의 가창을 곁들이는 이같은 구술의 연행성이야말로 조선족 설화가 지닌 주요 특징의 하나라 할 것이다.

㉕는 착한 주인공이 심술쟁이 박첨지의 농간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남생이를 마당에 묻어 주니, 그 곳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나무에서 쌀과 금 열매가 열려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노래 없이 개략적 서술만으로 전개되는 (임)과는 달리 (조)는 “남생이야 남생이야 / 잊지 못할 남생이야 / 몹쓸 놈의 박첨지가 / 네 목숨을 해쳤구나 // 나무야 나무야 / 남생이는 어디갔냐 / 내 마음을 네알거든 / 대답이나 하여다고”라는 노래를 개입시키고 있다. 노래가 끝나자 그 응답으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됨은 물론이다. 한편, 이 노래는 남생이

10) 傳奇小說에 있어서의 挿入詩는 앞으로 야기될 사건을 예시적으로 알려 주고, 사건의 발단에서 의사전달의 통로가 되게 하며, 주고 받는 시를 통해 대화적 진술을 펼치는 등으로 서사진행에 직접 관여한다. 이밖에도 삽입시는 서정적 분위기나 감정의 장면 설정을 통한 정적 교류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현홍, 「최치원전의 전기소설적 구조」, 『睡蓮語文論集』 9 (부산여대, 1982), 174~175쪽을 참조.

를 그리는 노총각의 심정은 물론 박첨지에 대한 그의 원망과 저주도 함께 담고 있다. 남생이의 영혼이 담긴 나무와의 영적 교감을 노래로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노래로 인한 영적 교감의 결과 나무에서는 금열매가 떨어지고, 이 사전으로 박첨지의 탐욕은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이야기는 박첨지의 몰락을 재촉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㉓는 취중에 벌거벗고 남의 규수 방에 잘못 들어가 세상 모르고 자던 젊은 남정네가 대감 댁 하인들에 의해 보쌈 당해 가는 명재경각의 상황에서 기지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대가를 올귀내는 이야기이다. (임)의 경우는 노래가 전혀 없으나, (조)는 생사람을 보쌈해 가던 하인들의 노래 - ① 대감에게서 받을 돈으로 호강할 생각하니 절로절로 흥이 난다, ② 보쌈 당한 이를 생각하니 불쌍기도 하구나, ③ 자기 자식을 살리자고 애매한 사람 잡는 김승지에 대한 저주 - 를 통해 보쌈의 동기는 물론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의 구체화가 서사진행의 기능과 직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㉔는 사람과 결혼한 구렁이가 첫날 밤에 허물벗고 귀공자가 되자 이를 시샘한 언니들에 의해 허물이 불태워지면서 새로운 사건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이 허물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금기를 어겼기에 낭군을 잃게된 셋째 딸은 몇 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끝에 가까스로 입을 재회하게 된다. 일반적 경우와 달리, 이 유형은 본토 채록 설화에서도 노래가 일부 보인다. 즉, (임)에서도 각시가 낭군을 찾아 가면서 부른 개인적 소회를 담은 노래와, 낭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새쫓는 아이의 노래 등 두 편이 삽입되고 있다. 그러나 (조)에는 ① 봉선화에 관한 서두의 노래·② 동자가 새쫓는 노래·③ 선비가 각시(봉선화)를 그리워하며 읊은 노래·④ 낭군에게 답하는 노래·⑤ 낭군이 낸 새쫓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시인 봉선화가 부르는 노래 등 5편의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다. 유래담에 딸린 노래라는 상투적 성격의 ①과는 달리, ②는 뒤에 각시가 ⑤의 노래를 창작 가창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었고, ③은 각시에 대한 낭군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로, 그리고 ④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방편으로 노래가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노래인 ⑤는 각시의 지혜가 못사람보다 월등히 앞설 뿐만 아니라 공자에게는 자타공인의 천생배필임

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⑤는 서사진행에 있어 노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노래들이 이야기의 요소요소에 개입되면서 구술자의 입을 통해 불리워지는 현상은 바로 설화의 연행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이를 만한 것이다.

㉔는 호랑이에게 쫓겨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명재경작의 순간에 자신이 지닌 방울을 울리거나 피리를 불자, 서로 어깨를 딛고 올라오던 호랑이들이 이에 맞춰 춤을 추다 떨어져 죽는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야기다. (입)에는 노래가 전혀 없고, 다만 방울 소리에 호랑이가 춤추다 떨어져 죽는다. 이에 반해 (조)는 3편의 도라지 타령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노래는 도라지 캐던 총각이 자신의 도라지 타령에 흥이 나서 호랑이가 접근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어닥친 호랑이에게 쫓기는 계기가 되었고, 나머지 노래는 곡조에 취한 호랑이들을 유인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여기서의 도라지 타령 역시 서사진행의 일부를 담당함은 물론 설화 구술의 평면적 분위기를 웃음과 흥취의 입체적 공간으로 이끄는 연행성을 부여한다 하겠다.

2.1.2. 이처럼 노래가 서사진행에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는 작품들과는 달리 ㉔에서 ㉔까지의 작품들은 삽입가요가 서사진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우리는 본토 설화에서는 보기 힘든 삽입가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이들 삽입가요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설화 구술상의 몇가지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주의 환기를 통한 흥미 유발, 서정적 분위기 설정, 감정적 공감대 형성 등이 바로 그러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중국 조선족 설화에 매개되고 있는 삽입가요의 기능을 연행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체적 정황의 함리적인 표출을 통한 현장성 및 사실성 확보의 기능이다. ㉔에서는 노래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도 (입)은 노래를 불렀다는 상황 설명밖에 없다. 대신 (조)는 구체적인 노래 내용을 담고 있어 청자의 의구심을 제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적 진술을 주고 받는 노래로 나타냄으로써 이야기의 입체적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㉔ 역시 (입)에서는 맷돌을 훑친

이가 멈추는 방법을 몰라 가라앉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에 반해, (조)에서는 만취하여 노래를 부르느라고 끝낼 줄을 몰라 침몰되어 버린 때문으로 처리하고 있다. 멈추는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맷돌만 제거하면 해결될 수 있는 (임)의 약점을, (조)는 “매돌아 돌아라 / 소금아 나오너라 / 매돌아 돌아라 / 소금아 나오너라”라는 우리가 취객에게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순반복의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이야기 정황의 그럴듯함이라는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연행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사실성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서정적 장면설정을 통해 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 노래가 활용된다. 말하는 남생이를 그리워하는 노총각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㉑나, 왕비 간택을 위한 단오날 잔치에 상전의 시샘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 종녀가 “불쌍토다 불쌍토다 / 종녀신세 불쌍토다 / 만인들의 명절날에 / 나는어이 못노는고”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른 ㉒, 미복으로 순행하던 임금이 가르쳐 준 담마저 틀리게 대답함으로써 낙방한 주인공이 자책 끝에 한강에 빠져 죽으려 하면서 부른 ㉓, 그리고 욕심쟁이 형님 때문에 자신의 사랑스럽고 총명한 아이들을 산 속에 내버리게 된 전날 밤, 아이 머리맡에서 “별아별아 아기별아 / 천결레 만결레 / 긴긴장바 뿌려줄게 / 이밤을랑 동여매라”라며 아비의 애뜻한 심정을 풀어 낸 ㉔ 등은 (임)의 간략한 상황 서술과는 달리 서정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설화의 이 대목에서는 구술자의 서술 방식이 가창으로 바뀌므로써 그의 심정은 바로 등장인물 그 자체의 절절한 심정으로 환치된다. 이와 더불어 구술현장의 청자들 역시 구술자와 등장인물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보다 밀착된 관계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화자 청자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는 연행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겠다.

셋째, 집단 의식 함양의 방편으로 노래가 활용된다. 중국 조선족 설화 중에는 개인의 독창이나 교환창이 아닌 합창의 형태를 띤 삼입가요가 많이 보인다. 착한 흑부리 영감을 모방하려다 실패한 지주를 두고 “욕심많은 지주영감 / 허욕 끝에 눈어두어 / 흑을팔아 득보려다 / 흑을 하나 더얻었네 // 쌍통이야 쌍통이야 / 욕심 끝에 쌍통이야 / 허를그만 잘린데다 / 쌍동흑이 차례졌네”라 놀린 ㉕

와, 奸夫와 짜고 첫날밤에 신랑을 죽인 姦婦를 치죄한 박문수의 업적을 칭송하여 “총명한 박어사님 / 출도호령 떨어지니 / 귀신도 겁을 내고 / 망나니도 벌벌 떠네 / 범몰어갔던 아들 / 런곳에서 건져내니 / 신묘한 그대공덕 / 어느넌들 감탄참으리”라 노래한 ㉔ 등이 합창으로 불리우는 삼입가요의 대표적 예들이다. 이들 삼입가요의 또다른 특징은 그 위치가 설화의 종결부에 놓인다는 점과 함께 그 노래의 내용이 작중 사건에 관한 민중의 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집단 가창의 노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집단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현실의 구현이었던 셈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족 설화는 삼입가요의 활용을 통해 서사 진행의 일익을 담당하고, 구술현장의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적 교류를 나누는가 하면, 감정의 장면을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감대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화를 구술하면서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노래를 곁들여 가창함으로써 구술 현장의 일인주도적 평면성을 공동참여의 입체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한다. 이는 바로 소수 집단인 이주 민족으로서의 연대의식을 스스로 다지고자 하는 통로 역할의 일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삼입가요의 개입을 통해 설화 구술의 현장은 그 연행성이 질적·양적으로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 하겠다.

2.2. 속담의 활용과 의미 강화

210여 종의 동일 유형 설화 중에서 중국 조선족 설화는 임석재본 설화보다 속담이 개입되면서 진술되는 작품이 유달리 많다. 이들의 빈도를 살펴 보면 속담이 개입되는 총 127종의 동일 유형 설화 중에서 속담이 3수 이상 들어 있는 작품은 80종, 5수 이상은 33종, 7수 이상은 20종, 10수 이상만 해도 11종이나 된다. 이들 설화 속에서 활용되는 속담의 기능은 바로 설화의 문맥적 의미를 확인 강화하는 것이다. 10수 이상의 속담을 활용하고 있는 작품을 들면 아래와 같다. 이들 각각의 설화와 짝을 이루는 동일 유형의 임석재본 설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을 짝지어 열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 까닭은 임석재본의 동일 유형 작품들에는 속담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㉔ <각쟁이 량반>(조.6-3, 57-65), ㉕ <달래와 미륵부처>(조.8-1, 413-422), ㉖ <선동이와 후동이>(조.8-1, 423-477), ㉗ <남성>(조.9-1, 29), ㉘ <지혜롭게 강도무리를 잡은 소년>(조.7-2, 16-35), ㉙ <록형제>(조.2-1, 184-196), ㉚ <금수탑>(조.5-2, 118-127), ㉛ <짜개바지>(조.5-2, 58-67), ㉜ <저승길>(조.8-1, 210-224), ㉝ <피많은 돌이>(조.7-2, 36-47), ㉞ <“과부”가 장가들다>(조.9-1, 80-91)

이들 작품에서 속담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대체로 두 모습을 보인다. 첫째, 이야기 줄거리의 요소요소에 삽입됨으로써 ① 판넨적 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② 이야기 내용에 대해 서술자 나름으로 해석·강조하며, ③ 이야기의 점층적 전개에 기여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경우이다. 둘째, 이야기의 특정 대목에 집중적으로 삽입됨으로써 그 대목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이다. 첫째의 예로는 <각쟁이 량반>, <달래와 미륵부처>, <지혜롭게 강도무리를 잡은 소년>, <“과부”가 장가들다>, <짜개바지> 등을 들 수 있고, 둘째의 예로는 <금수탑>, <저승길>, <남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예를 몇몇 들어보기로 한다.

2.2.1. 첫째의 예는, 흔히들 ‘자린고비’라고 불리우는 구두쇠 이야기이다. 이의 대표적 각편으로 우리는 중국 조선족 설화인 <각쟁이 량반>을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각편이 중국에서는 <런색한 지주>등의 이름으로 6편 정도 채록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들과 짝을 이루는 임석재 채록 설화로는 <어정고개>(임.8, 248), <진주자리뽕재기>(임.11, 101-102), <꼬뽕쟁이>(임.12, 159) 등의 9편 각편이 있다. <각쟁이 량반>의 서사 단락을 속담과 함께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 각쟁이 량반>

단 락	속 담
1. 각쟁이 양반이 살다.	1.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나온다.
2. 쉬파리가 좁쌀 한 알을 물고 가다.	2. 흉년엔 뱀이 조를 먹는다더니.

단 락	속 담
3. 각쟁이는 밥알이 아까워서 파리를 잡으러 가다.	3.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4. 다람쥐 채바퀴 돌 듯 하다.
4. 이리저리 뒹굴며 쫓는 꿀을 보고 아내가 만류하다.	5. 쥐 잡으려다 물독 깬다.
5.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다.	6.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6. 장독에 붙은 파리를 잡으려다 독을 깨다.	7. 장독에 빠진 쥐와 흡사하다(물에 빠진 새양쥐).
7. 나귀 뒷다리에 붙은 파리 잡으려다 밧길에 차여 똥구덩이에 빠지다.	8.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다.
8. 저자 거리의 막걸리 항아리를 깨다.	9. (주인은) 백주에 생벼락 맞은 격이다.
9. 가게 주인에게 잡혀 묶이다.	10. 하늘이 무너져도 나갈 구멍이 있다.
10. 미친 놈 취금을 받다.	11. 미친 놈에겐 불침이 약이다.
11. 각쟁이 양반이 사실을 실토하다.	12.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12. 소문을 들은 아내가 보상해 주다.	13.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3. "조밥 한 알 아까워서 장독, 항아리 깬으니 그 값이 얼마가."라며 하인들이 비웃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임석재가 채록한 이 유형의 설화 9편에는 속담을 매개시키고 있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조선족 설화인 <각쟁이 량반>에는 13수나 되는 속담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일반적 성격인 '단순한 구두쇠'를 '각쟁이 양반'으로 변개시킴으로써 계급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서두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의도는 이야기 줄거리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담이 매개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

다른 계급 대립적 이데올로기 요소들¹¹⁾ 대목 별로 부각·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양반의 구두쇠 노릇이 워낙이나 지독했기에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나온다’는 속담으로 그 인색함을 확인시키려는가 하면, 좁쌀 한 알 물고 간 쉬파리를 잡으러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턱없는 실수로 망신이나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쥐 잡다가 물독 깨기’, ‘물에 빠진 새앙쥐’, ‘범의 꼬리 잡은 격’, ‘백주에 생벼락’,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미친 늑대에겐 불침이 약’이라는 등의 속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서술함으로써 이야기 내용을 확인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속담은 낭패당하는 이야기 내용의 점층적 전개와 어느정도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구연자의 탁월한 능력 탓이거나, 아니면 기록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절성을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배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는 중국 조선족의 설화 구술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설화 구술 전통은 농경을 바탕으로 한 집거지의 형성, 이역만리 타향살이에서의 동포들이 지닌 문화적 결속감과 망향 의식, 강한 뿌리 의식과 이야기꾼에 대한 우대 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¹²⁾ 이같은 설화 구술 전통이 낳은 결과적 산물의 하나로 <각쟁이 량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속담의 효과적 활용 및 그로 인한 이야기의 양적 풍부화 내지는 질적 심화라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한다.

<달래와 미륵부처>라는 조선족 설화를 통해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보다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설화는 ‘계모의 전초소생 학대’ 모티프 중에서, 겨울철에 구하기 불가능한 물건(꽃, 딸기, 잉어 등)을 구해 오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전초소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임석재 전집에 두 편이 있는데, 여기에는 속담이

11) 중국 조선족 속담 전반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 논문과 같은 지면에 발표되는 김승찬님의 「중국 조선족 속담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 논문 35~39쪽을 참조.

없다. 그리고 조선족 설화 채록본에는 이 유형이 세 편 있는데, <달래와 미륵부처>는 그중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10수의 속담이 있고, <승천한 옥이> (조.13-1, 99-114), <백사슴>(조.3, 200-208) 등에는 각각 2수의 속담이 있다. <달래와 미륵부처>에 보이는 속담을 이야기 단락과 함께 표로 보인다.

<표 2 : 달래와 미륵부처>

단 락	속 담
1. 농사꾼 부부와 외동딸 달래가 살다.	1. 열 소경의 한 막대요, 팔 대군의 일 옹주라.
2. 부모의 정성 따라 잘 자라니 칭찬이 자자하다.	2.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다.
3. 행복한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 우다.	3. 흥진비래, 호사다마라.
4. 3년 간 흉년이 들다.	4. 왕가물 뒤끝에 큰 장마, 장마 뒤끝에 된서리.
	5. 입에 거미줄 치게 되다.
5. 많은 사람들이 아사지경이다.	6. (살아남은 자의 운명도) 풍전등화로 다.
6. 서울서 욕심쟁이 부자가 내려오다.	7. 부영이 욕심에다 오뉴월 독사같은 사나움이라.
7. 달래 아버지가 부자집 머슴살이 하다가 병이 들어 쓰러지다.	8. 청천백일에 날벼락이라.
8. 보릿고개에 부자는 달래에게 아비대신 불로초 캐오게 하니 더 없는 고난이다.	9. 이른 봄에는 여우도 눈물 쥘다.
9. 사슴의 도움으로 불로초 캐게 되어 고마워하다.	10. 짙은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닭은 데로 간다.
10. 불로초 먹은 부자 부부는 돌미륵으로 변하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계모와 전처 소생이 아니라 선량한 농사꾼 부부와 그의 딸 달래 그리고 욱심쟁이 부자이며, 이를 사이에 얹힌 이야기로 그 내용도 개변되고 있다. <승천한 옥이> 또한 악덕지주와 하인인 옥이라는 계급 대립적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 과정을 통해 악덕한 지배계급의 몰락 내지는 정벌로 종결짓는 이 이야기의 이데올로기 지향적 개변은 여기에 개입되고 있는 속담의 기능 검토를 통해서도 추론 가능하다.

농사꾼의 외동딸인 달래의 탁월한 행실과 보배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열 소경의 한 막대요, 팔 대군의 일 옹주'라는 속담을 사용하는가 하면, 3년을 얻은 흉년의 참상을 '왕가물 뒤끝에 큰 장마, 장마 뒤끝에 된서리', 욱심쟁이 부자의 잔혹함을 '부영이 욱심에다 오뉴월 독사의 사나움', 달래 아버지의 죽음을 '청천백일에 날벼락' 등의 속담을 통해 구술자의 계급대립적 설화 의도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히 과욕을 부리다가 천벌을 받아 흉한 돌미륵으로 변해 버린 욱심쟁이 부자 부부의 최후를 두고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는 인과응보적 평가의 결말로 구체화하는 대목은 바로 이 이야기에 개입된 속담의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된다 하겠다.

가난하고 미천한 총각이 신령으로 가장하는 기지를 발휘함으로써 부잣집 딸에게 장가드는 이야기 또한 그 각편이 많다. 이 유형의 설화는 소위 신분적·계급적 상이로 인한 혼사장애의 현실을 두고, 자신의 피를 이용하여 상대를 속임으로써 이를 극복해내는 이야기이다. <짜개바지>는 조선족 설화 중에서 이 유형의 대표적 작품이다. 임석재 채록 설화집에는 이 유형의 이야기가 세 편 전하는데, 여기에는 속담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짜개바지>에는 10수의 속담이 보인다.

<표 3 : 짜개바지>

단	락	속	담
1.	"짜개바지"가 장가 들고 싶으면서, 어머니로 하여금 부자집 마님에게 가서 청혼의 말을 전하라고 하다.	1.	헌 신작도 임자가 있는 법이다.

단	락	속	담
2.	기가 막힌 어머니가 만류했으나 듣지 않다.	2.	(마님댁 딸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3.	어머니가 결국 말을 전하러 갔으나, 마님의 화를 돋구어 매만 맞고 오다.	3.	자는 범의 수염을 다쳐놓은 격.
		4.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 오다.
4.	짜개바지는 양값음을 위한 계락을 꾸미다.	5.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
5.	부자집 마님은 늘 좋은 사위를 얻게 해 달라고 빌었는데, 어느날 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다.	6.	지성이면 감천.
6.	신령님은 짜개바지가 비록 미천하나 훌륭한 인물이니, 가족에게 사죄하고 그를 사위로 삼으라고 하다.	7.	심산 속에 옥이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
7.	신령님의 분부를 받은 마나님은 사죄하고, 서둘러 혼사를 준비하다.	8.	울며 겨자먹기.
		9.	소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
8.	짜개바지가 잘 차려입고 신랑행차를 떠나니, 사람들이 모두 짜개바지의 잘생긴 용모에 놀라며 이후 '서방님'이라 부르다.	10.	웃이 날개.

이 이야기 또한 가난하고 미천한 피돌이 총각과 부자집 마님과의 대결이란 점에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 계급대립적 요소를 찾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이 화해로 마무리되기에 이를 굳이 이데올로기적 개변이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이야기 줄거리 단락과 삽입 속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양자의 상관성을 통해 서술자의 지향의지가 확연히 강조됨은 물론 이야기 전개에도 흥미와 함께 박진감을 붙여 넣고 있는 점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혼인 관계를 맺기 힘든 상대를 두고 '헌 신작도 임자가 있다'는 속담을 내세워 천정배필임을 알리는가 하면, 청혼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난감해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하늘의 별 따기', '자는 범의 수염을 다칠까',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 올 것' 등의 속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같은 어머니의 곤혹스런 반응을 보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다', '심산 속의 옥, 개천의 용' 등으로 그 타당성을 합리화하는 짜개바지와 신령의 언급(짜개바지가 위장한 것임) 또한 속담이 지닌 이같은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혼인날 행차에 나선 짜개바지를 보고 사람들 모두가 서방님이라며 굽신대는 장면을 두고는 '옷이 날개'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 이 속담의 사용은 신분적·계급적 차별이 한갓 접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된다 하겠다.

2.2.2. 둘째의 예로, 여기서는 <금수탑>과 <저승길>을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금수탑>은 소위 '돌담 위에 놓인 금덩이'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임석재 전집에 각편이 9편 채록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돌노적과 벼노적과 바꾸다>(임.6-1, 81-83)에만 1수의 속담이 있을 뿐이다. 조선족 설화 전집에는 이 유형의 각편이 3편 보이는데, 그 중의 하나인 <금수탑>에는 속담이 10수 삽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2편에는 속담이 각각 4수씩 삽입되고 있다. <금수탑>의 속담은 이야기의 특정 대목에 삽입되면서 그 대목을 의도적으로 부각·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이야기 즐거위와 삽입 속담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 위하여 표로 나타내 보인다.

<표 4 : 금수탑>

단 락	속 담
1. 세 아들을 거느린 농군이 있었는데 날마다 술타령이라 매우 가난하게 살다.	1. 굶기를 밥 먹듯 하다.
	2. 서발 장대 휘둘러 봐야 거치는 것이란 거미줄 뿐이다.
2. 어느날 저녁, 막내가 온 가족에게 좋은 저녁을 차려주니 모두 눈감짝할 새에 먹다.	3. 개걸이 감식.
	4. 금강산도 식후경
3. 막내는 돈을 모아야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귀가시에는 꼭 돌 한 덩이씩을 가져다 쌓아놓자고 약속하다.	5. 황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6. 티끌 모아 태산.
4. 처음에는 지키지 못하는 때도 많았으나 점차 막내의 말을 잘 지키다.	7. 세 살 버릇 여든 한 살까지 간다.

단 락	속 담
5. 집 앞에 욕심많은 부자가 살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때문에 손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다.	8. 잡기를 빌어도 주지 않는다.
	9. 공것이라면 에미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손을 내민다.
	10. 거북 등에서 털을 긁는다.
	11. 죽은 송장도 내다 부린다.
	12. 부자 한 놈이 열 동네를 망친다.
6. 농부네 돌무더기 위에 금수탉이 있는 것을 부자가 알게 되다.	
7. 부자는 이웃을 돕는 척하며, 자기의 벼 낱가리와 농부의 돌 무더기를 바꾸자고 하다.	13. 이웃이 사촌.
8. 부자가 자기 벼 낱가리의 맨 윗단을 빼고 농부에게 주자, 농부도 돌무더기의 맨 윗돌을 빼고 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의 발단은 가난뱅이에다 술마저 좋아하는 농군의 살림살이 형편 및 배고픈 나날의 모습에 대한 서술로 시작되고 있다. 이같은 서두의 이야기에 ‘줍기를 밥 먹듯’, ‘서발장대 휘둘러도 거치는 것이라곤 거미줄 뿐’, ‘개걸이 감식’, ‘금강산도 식후경’ 등 4수의 속담이 삽입 활용되면서 그들의 가난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어서 막내아들이 제안하는 가난 타개책의 대목에는 ‘황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고’, ‘티끌 모아 태산’ 등으로 소비 절약과 저축을 강조하는 속담이 동원됨으로써 부를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같은 합의를 거쳐 가산을 조금씩 부풀려 감에 이웃의 욕심쟁이 부자가 우연히도 이 집의 돌무더기 위에 얹혀져 있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여기서 이웃집 부자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에는 5수의 속담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잡기를 빌어도 주지 않는다’, ‘공것이라면 어미 배속에서부터 손을 내민다’, ‘거북 등에서 털을 긁는다’, ‘죽은 송장도 내다 부린다’, ‘부자 한 놈이 열 동네를 망친다’ 등이 바로 그러하다. 전체 14쪽 분량의 이야기 중에 이 대목은 1/2쪽에 불과한데도 여기에 동원된 속담은 무려 5수에 이르고 있다. 위에서 보듯 <금수탉>은 ‘가난 타령’, ‘가난 타개책’, ‘욕심쟁이 부자’ 등의 세 대목에 13수의 속담 중 11수가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금수탉>에 삽입되고

있는 속담은 특정 대목이 지닌 의도를 집중적으로 부각 형상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라 하겠다.

‘저승 갔다 온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 들러줌으로써 욕심쟁이 부자에게 진 빚을 탕감받음은 물론 부자를 바보로 전락시키는 재미를 마음껏 누리는 이야기가 있다. 이 유형의 임석재본 각편은 7편이 있는데, 여기에는 속담이 한 수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족 설화 채록본에는 2편의 각편이 있는데, <저승길>에는 10수의 속담이 활용되고 있으며 <꿈으로 천냥 빚을 갚다>(조.7-1, 155-159)에는 2수가 보인다. <저승길>을 예로 하여 속담의 기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5 : 저승길>

단 락	속 담
1. 가세 극빈한 농군이 아내의 병 때문에 욕심쟁이 부자 집에 빚을 얻으러 가다.	1. 갈수록 수미산.
2. 욕심쟁이 부자는 이미 꿇준 빚 받을 생각만 하며 거절하다.	2. 벼룩의 간도 공것이라면 빼어먹자고 든다.
	3. 돈이면 죽은 귀신도 부릴 수 있다.
	4. 돈이라면 거북 등에서 없는 털이라도 끊어서 팔자고 든다.
3. 농군이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 그제야 빌려주다.	
4. 농군 부부는 빚 갚을 때가 되었으나, 아무리 일을 해도 갚을 방도를 마련하지 못하다.	5. 새앙쥐 불가심할 것도 없다.
5. 농군은 고민 끝에 죽은 척 연극을 작정하다.	6.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7. 죽을 병에도 살 약이 있다.
6. 부자는 상가에 와서 빚 얘기를 꺼냈다가, 농군의 아내에게 망신당하다.	
7. 며칠 후 부자는 죽은 농군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서 농군을 찾아가다.	8. 팔자 도망은 독 안에 들어가도 못 피한다.

단	락	속	담
8.	돈을 받으려던 부자는 도리어 농군의 계교에 넘어가다.	9.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9.	농군이 저승에 가 보니 부자의 조부가 악행으로 인해 벌 받고 있더라며 거짓으로 꾸며 말하다.	10.	서울이 무섭다고 문턱부터 진다.
10.	부자는 벌벌 떨면서 농부의 빛을 탐감하고 재산을 다 나눠준다.		
11.	농군이 가짜 편지를 써서 태우고는, 부자의 선행을 염라대왕에게 전했다고 하다.		

여기서도 서두에 진술되는 부자의 탐욕 행태가 3수의 속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벼룩의 간도 콩것이라면 빼어 먹는다’, ‘돈이면 죽은 귀신도 부린다’, ‘돈이라면 거북 등에서 없는 털이라도 끊어서 팔자고 한다’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어서 욕심쟁이 부자에게 진 빛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농군 부부는 ‘저승 갔다 온 연극’을 꾸며 부자를 속임으로써 빛을 떼먹음은 물론 그를 꿰려 주려는 시도를 보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죽을 병에도 살 약이 있다’ 등의 속담은 그들의 최후 수단이 얼마나 비장하고 용의주도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례들이다.

이같은 계교에 넘어간 부자가 받는 대가를 두고 서술자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속담을 동원하는가 하면, 저승 갔다 온 농군의 말에 찔찔매는 부자의 모습을 두고는 ‘서울이 무섭다고 문턱부터 진다’는 속담을 농군이 말하도록 함으로써 이 대목의 상황을 구체화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짓고 있다. <금수탑>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저승길>도 총 14쪽의 이야기이며, 서두 부분의 부자의 탐욕 서술 대목은 1쪽 정도인데, 여기에 3수의 속담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처럼 <저승길>에서의 속담은 이야기의 특정 대목에 집중적으로 삽입됨으로써 그 대목의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3.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부각과 서사구조의 변개

이데올로기는 시대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달리 말하면 이데올로기는 시대의 필요와 역사적 경험이 바뀔 경우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사고체계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집단 공유의 이데올로기는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가변적인 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본연의 특성과는 달리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하는 이중성을 띤다. 특히 공산체제 하에선 정책 자체가 사회 역사적 상황의 등가물로 존재하고, 문학은 정책의 반영이거나 그 산물이다.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문화정책이 중국 조선족 문학을 통제해 온 역사적 현실이 바로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설화에는 화자의 설화 구술적 재능이나 청자의 기호를 드러내는 반응 외에, 중국에 정착한 조선민족으로서의 이중성¹³⁾을 반영하는 등의 이데올로기적 作爲性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조선 본토의 설화를 전승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계급 이념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의 설화를 선별하여 침삭하고 나아가 새로운 설화를 창작하기도 한다.¹⁴⁾ 이제 이를 우리의 본토 설화와 중국 조선족 설화의 구체적인 대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 13) 중국 조선족 문화는 모태인 조선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조선적인 특성과 중국적인 특성이 결합된 이중적 성격의 문화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판룡, 「중국조선족 문화의 성격 문제」, 『중국 조선족 문화연구』 (연변대학 제1차 중국조선족문화학술대회 논문집, 연변대학출판사, 1993), 2~4쪽을 참조.
- 14) 러시아 글로 발간된 『조선의 민담』(1908년)으로부터 김재권의 『이룡산 명월호 전설집』(1993) 까지 발간된 총 53종의 설화집을 검토한 김동훈·허형석은, 조선족 설화의 70%가 조선에서 전승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전승과정에서 변이된 것은 10%, 그리고 나머지는 정착생활과정에서 새롭게 창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통계 수치에 타당성이 있다면, 필자의 본 논문은 이 10%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 대상 자료의 선정 과정 및 접근 방식이 상이하기에 통계 수치의 일치 여부는 보다 다각도의 논의를 거친 후에야 확정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훈·허형석, 「중국지역 조선족 설화의 변이양상」(소라허형석박사학위논문 『국어국문학 연구』, 동 간행위원회, 태학사, 1996, 104쪽)을 참조.

3.1. 지배계급 비판과 극단적 대립구도의 설정

설화는 대개 善-惡, 幸-不幸의 이원적 대립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는 설화가 구술행위에 의해 향유되는 것이기에, 이분법적 단순구조가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고와 연상작용 및 기억의 편이를 도모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화는 그 담당층이 피지배계급인 일반 민중인 까닭에 지배계급과의 갈등이 이원적 대립구조의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현실비판의식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이주민족인 중국조선족이 향유하는 설화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지배-피지배계급의 대립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다. 중국 조선족의 문헌 정착 설화와 입석재 채록 설화집에 공통으로 수록되고 있는 동일 유형의 설화 210여 종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㉑ <그것 없이는 못 살어요>(임.5, 352-353) : <명청이>(조.7-1, 420-424), ㉒ <도둑 잡은 지아>(임.1, 183-184) : <지혜롭게 강도 무리를 잡은 소년>(조.7-1, 16-35), ㉓ <흰나비의 유래>(임.6-2, 353-354) : <나비 한 쌍>(조.2-1, 269-277), ㉔ <장자못>(임.6-2, 229-230) : <각사바위>(조.3, 29-38), ㉕ <이상한 나뭇잎>(임.12, 119-120) : <은신초>(조.12-1, 20-26), ㉖ <장인 도둑질 버릇 고치다>(임.1, 253-254) : <지주놈에게 된매를 안기다>(조.2-1, 412-413)¹⁵⁾

3.1.1. 인물·성격의 대립적 설정

설화에 있어 인물과 그 성격의 설정은 청자에 대한 주제 전달의 명확성 및 기억의 용이성을 고려해 대체로 전형성을 띠게 마련인데, 조선족 설화 중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인물간의 대립 구도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

15) 이 외에 ㉗ <인작>(임.10, 257-258) : <야밤의 까치소리>(조.11-1, 270-273), ㉘ <미련한 원님>(임.5, 348) : <달을 산 사또>(조.6-2, 101-103), ㉙ <거짓말 잘 쓰는 사람>(임.1, 104-106) : <술구이 총각>(조.2-1, 29-33), ㉚ <서천 서역국으로 접치려 간 아이>(임.4-3, 186-189) : <초록동의 이야기>(조.6-3, 140), ㉛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임.5, 316) : <불이 김선달의 이야기>(조.11-1, 450-470), ㉜ <흑 배러 갔다가 흑 불이다>(임.6-2, 442-443) : <흑 펜 이야기>(조.13-1, 9-24), ㉝ <과부를 데려 왔더니>(임.1, 229-230) : <“과부”가 장가들다>(조.9-1, 80-91) 등의 작품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있다.¹⁶⁾ 이같은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인 계급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코자 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㉔는 실수로 자신의 성기를 잘리게 된 멍청한 남편을 두고, 부인이 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푸념하는 내용이다. (임)은 단순히 “그것없이 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부부간의 성생활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만 관심을 두는 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에서는 “개를 잡는다면 자기 목에 밧줄을 맨 뒤 방 밖의 남편에게 줄을 당기게 할” 정도로 자식 출산의 불가능으로 인한 사태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무자식의 탓을 여성에게로 돌려 七去之惡이라는 악덕규범의 하나로 마련해 놓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의 피해자로 부인의 성격을 설정한 것이다.

㉕는 나라에서 잡지 못하는 도둑을 잡아, 이들에 의해 살해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일부러 도둑 소굴에 들어간 아이의 용맹과 지략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는 도둑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포승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그들을 줄줄이 묶은 후에 관가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도둑들을 일망타진하게 된다. 주인공인 아이와 도둑의 인물 설정만으로 보면 두 이야기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건을 해결하고 난 뒤의 ‘사또’ 또는 ‘함’이 보인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곧 (임)은 아이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데 반해, (조)는 아이 엄마의 신고조차 목살하고 이들을 인질로 끌고 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사태를 믿게 되는 무능한 ‘함’으로 변해되고 있다.

㉖는 한 여자가 사랑하는 이의 무덤 옆을 지나가다 무덤에 뛰어 들어간 후 흰나비 한 쌍이 되어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임)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을의 처녀-총각이고 둘을 헤어지게 하는 제3자는 둘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처녀의 부모’지만, (조)는 골뱅이 각시-외토리 총각 외에, 골뱅이 각시에 혹해서 그녀를 강제로 납치하여 부인으로 삼은 ‘사또’라는 인물이 개입된다.

16) 대체로 조선족 설화는 소작농·젊은 머슴·미망인·거지·과부 아들·유복자·기생·무당딸 등 주로 하층의 소외된 계층을 피지배계급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선한 인물로 부각시킨다. 반면에 왕·정승·사또·법관·낙향군수·부자·수전노·아전·지주 등의 인물을 지배계급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타도 내지는 개과천선의 대상으로 부각시킨다.

그리고 ㉔는 전형적인 ‘장자못 이야기’로 (임)이 심술궂은 시부-착한 며느리의 인물설정임에 비해, (조)는 ‘정승’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맺어진 부부관계로서의 <여자 보쌈> 화소가 덧붙는다.

㉕는 몸을 가릴 수 있는 이상한 나뭇잎으로 횡재를 한 사람을 모방자가 흉내내다 패가망신하는 이야기다. (임)은 소금장수-‘단순한 모방자인 이웃사람’임에 비해, (조)에서는 머슴-“새경조차 잘 주지 않고, 재물이라면 눈에 쌍볼을 켜고 덤벼드는” 노동력 착취의 대표적 인물인 지주로 설정되고 있다. ㉖는 도둑질을 일삼는 윗사람의 도둑버릇을 고쳐 주는 이야기다. (임)은 도둑질을 잘하는 사위를 얻어 부자가 되려는 장인-장인의 버릇을 고치려는 사위임에 비해, (조)는 자기 발의 콩을 두고 남의 발 콩을 소에게 먹이도록 머슴에게 명하는 욕심 많은 지주-이를 혼내주려는 머슴의 관계로 변개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은 ‘심술궂은 시부-착한 며느리’, ‘착한 소금장수-단순한 이웃관계’에서 보이듯 그 인물설정의 잣대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계임에 반해, (조)의 경우 ‘머슴-지주’의 관계처럼 철저히 계급대립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지배계급이 대부분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는 중대한 사건은 항상 계급투쟁과 생산투쟁의 첨예한 표현으로 문학은 이런 사건에 치중하여 표현해야 한다고 보는 중국 조선족의 문예창작관과¹⁷⁾, 계급투쟁을 사회진보의 결정적 추진력으로 간주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설화적 변개라 하겠으며, 더 나아가 이는 조선족이 중국 토착민족들에 대해 가진 이주민으로서의 피해의식이 잠재적으로 반영된 결과의 일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1.2. 결말의 잔혹성

설화에서의 결말은 구술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이야기의 서술의도를 보다 분명히 밝히는 곳이다. 그런 까닭에 어떤 설화는 본의 아니게 작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¹⁸⁾ 인

17) 림목함, 『제재에 대하여』, 『제재·인물 및 기타』(림목함·당도, 연변인민출판사, 1960), 74쪽.

18)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㉗ <호랑이와 토끼>(임.1, 21-22) : <딸랑이>(조.6-3, 118-123). ㉘ <거짓말 잘하는 사위>(임.5, 317-318) : <장인의 버릇을 뎌 사

물이 철저히 계급대립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지배계급이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 조선족 설화의 결말은 극단적이고 처절하리만치 잔혹성을 띠면서 현실비판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이 특징이다.

㉑는 여성이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개”로 환치하는 처절한 자기비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봉건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억압받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상징되는 봉건사회제도 그 자체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㉒, ㉓, ㉔는 ‘사포’와 ‘정승’으로 대표되는 ‘官’의 횡포를 주로 부각하되, ㉒는 결말 부분에 관가에서 어미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둑이 무서워서 그런 것으로 믿었다”는 아이의 언술을 덧붙임으로써, 官의 무능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官이 아이에게 초차 불신 받는 작중현실로 변개시키고 있다. ㉓는 기존의 ‘축영대 이야기’의 종결부인 ‘무덤나비담’에다 ‘관탈민녀형’ 이야기의 대표적인 ‘우렁이각시담’을 결부·변개시킨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지배권력층의 민중핍박과 수탈적 현실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민중의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㉔는 이정승의 강제납치가 강조되면서 아낙을 죽이려던 정승이 자신의 칼에 의해 도리어 죽게 되는 결말로 변개된다. 곧, ㉒는 민중의 통쾌한 승리를, ㉓와 ㉔는 민중의 처절한 패배를 그리고 있으면서도 가해자인 지배계급을 징치하는 의도적 결말로의 변개를 보이기도 한다.

구전 설화의 주인공 및 주요 담당층은 대체로 피지배계급인 일반 민중들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화 특히 민담은 피지배계급의 승리 내지는 양자의 상호 화해를 그리게 된다. 그러나 사물의 유래담과 직결되는 이야기인 전설은 그 어느 설화보다 이야기 내용적 문맥에서의 현실적 증거물을 매개로 해서 종결되는 구조를 지님으로써 대립의 심각성은 물론 패배자의 아픔을 항구적으로 지속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곧 피지배계급의 패배와 좌절이 그들의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패배·좌절이 지배계급의 횡포에 의해 초래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민중의 혁명정신 고취에 적극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위>(조.4, 275-280), ㉑ <아랑자>(임.10, 41-44) : <아랑이>(조.5-2, 164-172), ㉒ <왕이 될 꿈>(임.5, 49-50) : <리성계의 꿈>(조.3, 408-409) 등이 있다.

㉔와 ㉕는 타도의 대상이 민중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지주로 나타난다. ㉔는 (임)의 '모방실패담'이 (조)에서 피지배계급의 기지에 의한 '사기담'으로 변개된다. 또한 결말 부분에서 자신의 모습이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믿게 된 주인공의 모자라는 듯한 행위를 두고, (임)은 단순히 가게의 물건을 훔치다가 망신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음에 비해 (조)에서는 관청의 '官印'을 훔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으로 변개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富와 함께 '官印'으로 상징되는 권력마저 함께 추구하려는 당시 지주들의 작태를 비판함은 물론,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민중들의 의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머슴들에게 속아서 곤장 80대를 맞아 녹초가 되어버린 지주의 모습 한편에, 지주를 숙인 후 도망갈 채비를 마치고 나룻배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머슴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착취계급에 대한 복수를 완수해 낸 민중의 통쾌함을 그리기도 한다.

㉕에서는, (임)이 사위의 '善意'에 의한 거짓말이 개입된 행위의 결과 장인의 회개가 이어지는 화해로운 결말을 보인다. 이에 반해 (조)는 발주인이 지주를 두들겨 패면서 "날 도적놈"이라고 욕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애당초 출발에서부터 머슴과 발주인이 공모하여 지주를 징치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행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이 피지배계급의 분풀이로 종결됨은 당연하다 하겠다. 실제 조선족 설화에서 지배계급의 전형으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인물은 '지주'이다. 1926년 6월의 통계에 의하면 東滿四縣의 소작농 93%가 조선족이었고, 애써 개간한 땅은 법적 등록이 없거나 허가되지 않아 관청에 강점되어 버렸으며, 설사 소작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토지세가 수확의 절반인 외에 피고용세·거주증명비·借地증명비·烟筒稅·水利稅·가옥비·牛稅·水井稅 등을 납부해야 했다.¹⁹⁾ 형편이 이러하였으므로 당시의 '지주'는 조선족 민중 착취의 표본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 조선족 설화가 설화 일반의 등장인물이 지닌 보편적 인간관계를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의 극단적 대립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결말 역시 피지배계급의 처절한 죽음을 내지는 지배계급에 대한 극단적인 정

19) 김보민, 「요녕, 흑룡강성 조선족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세계 속의 한국문화』(제1회 세계 한민족 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8~51쪽.

치를 가하는 모습으로 변개시키는 경향을 살펴 보았다. 이같은 변개는 권력의 횡포와 경제적 착취에 대한 민중의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바로 무산계급의 폭력 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설화작품에 침투된 결과의 산물이라 하겠다.

3.2. 노동 가치의 중시와 대조적 결말

노동은 합목적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으로서 이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이자 물리적인 생활조건 바탕이 된다. 특히,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 원천으로 인식되는 노동은 공산사회에 있어서 그 자체가 자기활동(self-activity)이자 자기확인(self-conviction) 과정이 된다.²⁰⁾

중국 조선족 설화 또한 이같은 의도를 어느정도 지니고 있다. 즉 이들 설화의 담당층은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 부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와 별도로 생존공간 확보와 민족 존립기반 조성이라는 당면과제와 연계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모방담'을 활용하여 성실과 불성실에 대한 평가를 대조적인 결말로 이끌어내는 등의 변개를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㉑ <범의 통가죽>(임.2, 119-120) : <재벌가죽>(조.3, 246-249), ㉒ <여우 잡는 작대기>(임.4-3, 218) : <소금장사와 난봉군>(조.7-1, 237-240), ㉓ <사람을 미끼로 하여 범을 잡는다>(임.2, 116-117) : <망태기>(조.4, 29-33), ㉔ <명당을 얻게 된 형제>(임.8, 88-89) : <피있는 동생>(조.4, 48-54)²¹⁾

㉑는 호랑이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판사판으로 범의 꼬리를 잡고 늘어지니 범이 굴에 들어 가려다 안면에 상처를 입고 털가죽이 몽땅 벗겨진다. 이 가죽을 얻어 그는 부자가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모방을 통해 가죽을 얻었으나 재벌가죽이라 하여 돈을

20)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사회과학출판사, 1990. 8, 161쪽.

21) 이 외에 ㉕ <형제성>(임.6-2, 235-236) : <최팔남의 누이동생>(조.8-1, 28-39), ㉖ <메뚜기·확새·개미>(임.2, 40-41) : <이마 벗어낸 메뚜기>(조.8-2, 57-61), ㉗ <복없는 사람에게는 금도 구렁이로 보인다>(임.9-2, 267) : <금구렁이>(조.3, 249-254)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얼마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㉞는 소금장수가 사람으로 변한 여우를 막대기로 죽인 뒤 육십쟁이 모방자의 청에 의해 막대를 비싸게 팔게 되는데, 막대기를 비싼 값으로 입수한 모방자가 이를 훔내내다 진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㉟는 호랑이를 유인하기 위해 벼랑 끝 높은 나무에 걸린 망태기에 들어가 호랑이를 유인, 떨어져 죽게 함으로써 가족을 얻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모방자가 훔내내다 도리어 자신이 죽게 되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는 아버지가 죽자 명당 마련을 위해 동생이 지관을 두들겨 썰 때 형이 구해주는 것처럼 연극을 꾸미니, 형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품은 지관이 명당을 잡아 준다는 이야기이다.

㉡를 제외한 나머지 ㉠, ㉢, ㉣는 모두 ‘사례성공담’과 ‘모방실패담’ 등 두 이야기의 결합이되, 주인공과 모방자의 인물설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구분	(임)		(조)	
	주인공	모방자	주인공	모방자
㉠	저자거리에서 술 마시고 취해 쓰러진 자	같은 마을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	게으름뱅이에다 공짜를 즐기는 이
㉢	소금장수	어떤 이	조실부모한 노총각 소금장수	게으름뱅이에다 공짜만 즐기는 난봉꾼
㉣	소금장수	이웃사람	손끝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타인이 아닌 주인공 자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임)에서는 주인공-모방자의 관계가 결코 대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 구술자 역시 好惡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에서는 ㉠, ㉢에서처럼 주인공-모방자의 관계가 성실성의 잣대에 의해 명확히 대조적인 인물로 설정되고, 구술자 역시 주인공과 모방자에 대해 각각 好惡의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 경우 (임)과 달리 “일하

기 싫어 진종일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살아 가면서 평생 소원이 놓고 먹는 것”인 젊은 주인공 자신이 아예 모방자도 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급대립담’ 등에서 극도로 부정적인 인물로 조명되던 ‘부자영감’이 노동과 근면이라는 잣대에 의해 긍정적 인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이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만한 것이다.

인물 설정에서 예견된 것이지만 결말 역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㉑이야기에서 (임)은 모방자가 얻은 호랑이 가족이 재벌가족이라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그치고 있는 반면, (조)는 모방자가 가산을 탕진하는 내용으로 설정된다. ㉒ 역시 (임)에서는 모방실패에 대한 모방자의 수난이 없으나 (조)에서는 모방자가 가족들에게 능지처참 당한다. 그리고 ㉓는 (임)이 모방자의 죽음에 그친 반면, (조)에서는 주인공 자신의 죽음으로 확대 개편된다.

㉔는 ‘모방담’의 개입과는 무관한 ‘지혜담’에 속하는 이야기로서, 등장인물을 형제로 설정한 점은 같으나, 그 결말 처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임)은 그 결과가 지관을 속여 명당을 얻게 된 형제의 지혜를 강조한 반면, (조)는 “형은 명풍수를 모셔다 의식주가 부럽지 않을 좋은 산자리에 아버지를 모셨는지라 당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안하고 집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은 명당만 믿고 놀다가 평생 배꼽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로 날마다 음식을 구해 먹는 내용으로 동생의 성격을 변개시킴으로써 노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조선족 설화의 변개에는 성실성도 중요 잣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타국에서의 삶에서 문제되는 생존공간의 확보 및 민족 존립기반의 조성과의 관계가 있다. 이주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 경우는 생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조선을 떠나 중국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쪽박차고 국경을 건너간 빈농집단, 애국독립지사, 그리고 상인과 선교사 및 교육자들이었다. 그 중 가장 많았던 계층이 바로 일제하에서의 수탈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월경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중국 동북의 광활한 대지는 땅이 넓고 미개척지가 많아 그들의 유동을 부채질하였고,²²⁾ 그 결과 농경민족으로서 유랑생활에서 벗어나 정

22) 최희수, 「중국 조선민족문화의 기본특성」, 『중국 조선족 우열성 연구』(연변대학 21세기를 달리는 중국조선족 총서편찬위원회 편, 집문당, 1995), 51쪽.

착생활을 하고픈 강한 집착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의 90%가 농민 입에서 알 수 있듯 밀천이 없었던 관계로 사업추진이 힘들어 황무지를 찾아 水田을 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수전 개발은 곧 집체적 노동력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²³⁾ 따라서 '농본경제사회'에서 성실성의 척도인 노동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나아가 민족존립의 기반 조성에도 막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무기였던 셈이다. 조선족 설화에서 노동가치를 이같이 중시하는 이면에는 조선족의 절대다수가 농민이자 이주개척민이었다는 절박한 사정이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중국 조선족 문화의 적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3. 공동체 의식의 강조와 집단 행복의 추구

민족은 혈연적·언어적·문화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각각의 민족은 타민족과 변별되는 그 나름의 집단적 의식, 곧 민족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동물의 歸巢本能과 마찬가지로 민족의식은 그 민족에게 있어 가장 생명력 있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의리와 화합을 중시하면서 아울러 집단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래 중심의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왔다. 우리 본토의 설화와는 달리 조선족 설화에는 타인이나 집단의 행복을 개인의 안락보다 상위 가치로 설정함으로써 숭고한 비장미마저 띠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는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의 위상 및 구술문화 자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범주에 드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㉑ <집안 화복의 비결>(임.3-3, 300-302) : <999석군과 천석군>(조.3, 291-298), ㉒ <발해왕조의 거울>(임.4-1, 66-68) : <경박호>(조.2-1, 309-319), ㉓ <거짓말 세 마디로 사위되다>(임.1, 297-298) : <사윗감 고르기>(조.5-2, 225-234), ㉔ <용정>(임.3, 225-226) : <만석동과 용정>(조.1-1, 158-162)²⁴⁾

23) 주로 同鄉人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족 부락의 내부조직에 농업생산을 위한 상호호부조의 목적으로 '품앗이'·'쇼겨리'·'돌계'·'두레'·'황두' 등 농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결사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는 박경희, 『조선족 민족사 연구』, 료녕민족출판사, 1987, 408쪽을 참조.

24) 이 외에 ㉕ <백정의 피>(임.12, 146-147) : <저승길>(조.8-1, 210-224), ㉖ <석

㉔는 집안불화로 속을 썩이던 이가 화목한 집안에 가 전문한 것을 그대로 자기 집에서 실행하려다 실패하는 이야기이다. (임)에서는 모방자가 가족들에게 다소 무리한 지시²⁵⁾를 한 결과 실패로 돌아가자, 이를 지켜보던 화목한 집안의 가장이 “집안이 화목하려면 집안 어른이 무신 일을 시키드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 화목하게 사는 길”이라고 충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에서는 모방자의 실행없이 모범 집안의 모습만을 투영한다. 가장의 명령도 아들을 불러 “지붕 위에 사닥다리를 놓고 황소를 올리라”는 것밖에 없다. 가장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전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던 (임)에서의 비합리적 내용들이 대부분 제거되고, 대신 “장들이는 사닥다리 우에 올라가서 꼬삿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고, 박선달의 마누라는 몽둥이를 들고 소 옆에 서서 잔등을 때리고 머느리는 소궁둥이를 떠밀면서 올라가라고 소리쳤다”는 상황 설명만 부각시킨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던 가장이 자신이 시킨 일의 불합리성을 먼저 인식하고 지시 후 곧바로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고 역시 “나라나 백성이나 집안에 주장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합심이 되어야 무슨 일이든 바로 되는 법”이라 하면서 가장의 권위보다 구성원 모두의 합심 단결이 요체임을 밝히고 있다.²⁶⁾

㉕는 물 속에 빠진 거울을 건지기 위해 일가족 모두가 힘을 합해 그곳의 괴

충장군 도둑 잡다>(임.2, 211-212) : <피 있는 거인>(조.8-1, 155-159), ㉔ <바닷물이 짠 이유>(임.3-1, 54-55) : <매돌>(조.2-1, 112-119), ㉕ <제사는 친자손이 지내야 한다>(임.2, 291-292) : <죄는 지은 데로 간다>(조.4, 517-521), ㉖ <4대째 내려온 불씨>(임.5, 161-162) : <새 머느리와 동자삼>(조.7-1, 381-382) 등의 작품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25) 마누라는 저고리를 벗고 흙치마만 입고, 머느리는 치마저고리 다 벗고 갈랑바지만 입고 솔뚜껑 쓰고 춤추며 나와 손님을 맞게 하고, 아들은 송아지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 한 바퀴 돌게 하고, 딸에겐 발가벗고 양귀를 잡고 나와 절하게 하는 등 다소 황당한 명령이 주류를 이룬다.

26) 이밖에 <한 가정의 인심>(조.3, 197-198)에서는 염라왕의 호출 명령을 받은 가장을 대신해 집안 구성원 모두가 호출에 나서려고 하니 염라대왕조차 감동하게 되며, <화목한 가정>(조.3, 236-237)에서는 빨래를 태운 것에 대해 온 가족이 서로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속담에 의가 좋으면 천하도 반분한다라고 하였는데 아마 이러한 가정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는 구술자의 논평은, 이 유형의 이야기가 결국 집단구성원의 합심단결이 행복의 요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물과 힘을 겨루는 처절한 투쟁 끝에 가까스로 괴물을 죽이게 되지만, 이 싸움의 후유증으로 인해 일가족 또한 모두 죽게 되는 이야기이다.²⁷⁾ 괴물이 지키고 있는 거울을 꺼내려던 일가족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점에서는 양자 모두 같다. 그러나 거울을 건지려는 이유가 (임)은 발해왕에 대한 신화의 충성심과 개인적 공명심의 발로에 의해서라면, (조)는 우선 “물 속에 잠긴 거울이 때때로 조화를 부리는 바람에 호수에 때아닌 풍량이 일어 고기잡이배가 뒤집히곤 하였으니 이 고장 어부들을 위하여 그 거울을 건져내려고 한 그였다.”라는 서술에서 볼 수 있듯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그 혜택이 인근 어부들 모두에게 미친 점이 다르다. ㉓는 거짓말 내기를 해서 상대가 자신을 속이면 딸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등의 부당한 게임을 동원해 가며 하층민을 농락하던 부자가 있었는데, 머슴의 아들인 총각이 거짓말로 주인을 속여 그 집 사위가 되는 이야기다. (임)에서는 그 수혜가 총각 개인에게만 한정되지만, (조)는 사위가 된 후 대가로 주어진 수혜 내용을 서민대중과 공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㉔는 악한 용을 제거해 달라는 선한 용의 부탁을 받고 악한 용을 죽인 뒤 선한 용에게 소원을 빌어 복 받은 이야기다. (임)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용의 보은이 射手 일 개인에 그치지만, (조)는 소원을 묻는 용에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황무지를 논으로 개간해 주면 비옥한 논으로 가꾸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용의 보은이 마을 전체의 유복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체로 (임)에서는 개인의 행복차원으로 머무는데 비해, (조)에는 구성된 모두의 합심에 의한 집단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는 개인주의를 ‘본위주의’·‘소집단주의’·‘종파주의’ 및 ‘자산계급 세계관의 핵심’으로 단정 짓고, 이를 당조적의 이념과 맞서는 반동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중국 공산당의 강령²⁸⁾과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중국 대륙의 한 변두리

27) 경박호 이야기 중에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이는 작품도 한 편 채록된 바 있다 (조3, 38-45). 그러나 이야기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비운의 왕조 발해에 얽힌 전설의 전형과는 거리가 먼 작품인 듯하다.

28) 료녕 <공산당원> 잡지사 편저, 「171. 무엇 때문에 극단적 개인주의사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당성 당작풍 당규를 문답』(료녕민족출판사, 심양, 1985), 223쪽.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이 처한 역사 현실과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이다.

조선족은 19세기 중엽이후 중국에 遷入한 민족으로서 주체민족인 漢族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을 떠받치고 있는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며, 이주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일제의 잔혹한 압제와 경제적 수탈로 인한 극심한 빈곤이었다. 그러나 '封禁令'²⁹⁾으로 상징되는 청 정부의 타민족 배타정책과 '薙髮易服令'³⁰⁾으로 상징되는 타민족 同化정책,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중국대륙에까지 뻗친 日帝의 위협 등은 중국 땅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自強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소위 「백두산」계 설화³¹⁾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 사실이 그 단적인 예이다. 설화 속의 백두산은 생명의 근원지임과 동시에 수호신의 거주처이며 한민족 번성의 발원지³²⁾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오랜 역사에서 형성된 우리 민족의 용감하고 슬기로운 품성과, 일을 처리함에 있어 화합을 중히 여기고 외적의 침략이나 하늘의 재해를 받을 때 뭉쳐서 싸우는 강한 집단 의식을 내용 속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³³⁾ 이같은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구술문화 자체의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술문화 속에서 개념화된 지식은 소리내어 되풀이하

29) 이에 대해서는 이헌홍, 앞의 논문, 32쪽을 참조.

30) 이는 1890년 淸이 우리 민족에게 만주풍속대로 머리 앞 테두리를 깎고 머리채를 땅아 뒤에 드리우게 하고 만주복장으로 갈아입을 것을 강요한 정책으로, 불복하는 조선족은 거주와 고용의 엄금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은 1913년 수천의 농민대표가 연길 도태부 대문 앞에 모여 농성함으로써 해결되어 우리는 민족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천지의 무지개』(조선 대가정총서, 연변 인민출판사, 1982. 3), 21~24쪽을 참조.

31) 「백두산」계 설화'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설화군으로 대표적인 설화자료 집은 다음과 같다. ① 『길림성민간문학 집성』(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간문학집성 편찬위원회, 1987), ② 『조선족 민간고사선』(상해 문예출판사, 1985), ③ 『김덕순 고사집』(상해 문예출판사, 1983), ④ 『옥녀지』(연변인민출판사, ?), ⑤ 『팔선녀』(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87), ⑥ 『삼태성』(연변 인민출판사, 1983), ⑦ 『백두산 전설』(연변 인민출판사, 1989)

32) 조희용, 「백두산설화와 민간 의식」, 『백두산설화연구』(정재호 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2. 9. 30), 24~26쪽.

33) 최삼룡, 「중국 조선족 백두산 설화의 의미」, 위의 책, 146쪽.

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지적인 경험들이 유산으로 남아 형성된 정신은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틀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어³⁴⁾ 향유집단 고유의 규범성을 떨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가정을 위시한 집단 화합 중시의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의도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설화는 삶의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다양한 인식내용을 일정한 구조 속에 형상화한 인간정신의 소산으로 이는 곧 향유하는 이들의 삶의 양식이자 실체이다. 따라서 개인의식을 반영한 우리의 전래 설화를 ‘공동체 의식의 강조와 집단 행복의 추구’로 변개한 중국 조선족 설화는, 동물의 귀소성과 마찬가지로 타민족의 외압에 대한 민족적 귀속성과 민족보존의 자아의식이 본능적으로 작용한 결과적 산물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4. 경험현실적 논리와 자력해결의 서사구조

경험은 지적 또는 행동적 실천을 통해 제반 환경이나 세상과 직·간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나며, 이는 인간의 사고·정감 및 행위 등에 일정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을 연결해 주는 고리 구실을 한다. 중국 조선족 설화는 초월적 세계관에 입각한 초경험적 존재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전개 및 해결 등의 방식보다는 경험현실에 바탕을 둔 사건 전개 및 해결 방식을 많이 보인다. 이같은 경험 현실적 논리는 자력 해결이라는 서사구조로 작품에 구현되는데, 특히 등장인물의 주체적 의지에 의한 자력해결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변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김판서 아들과 이판서 아들>(임.10, 291-295) : <리현령과 김진회>
(조.4, 118-129), ㉡ <틀린 답에도 급제하다>(임.2, 319-320) : <턱턱이>
(조.10-1, 68-73), ㉢ <최치원>(임.7, 68-70) : <최치원의 이야기>(조.11-1,
216-225), ㉣ <열녀>(임.7, 332-333) : <혹심 먹은 친구>(조.7-1, 240-245)

34) Walter J. Ong, *Orality & Literacy*(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2), 67쪽.

㉓는 고전소설 <옥단춘전>의 설화적 유포본이라 이를 만든 것이다. 동문수 학하며 결의형제를 맺었던 친구가 평양감사가 된 후 신의를 저버리자, 버림받은 친구가 제삼자의 도움으로 벼슬자리를 얻은 후에 친구를 징치하는 이야기다. (임)은 배신에 대한 징치를 강조한 까닭에 버림받은 친구의 과거급제가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순전히 홍판서라는 제삼자의 도움에 의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조)는 제삼자로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직접 개입하되 그녀와 함께 3년을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과거급제 역시 "공든 탑이 무너지라"라는 구술자의 언술에서 드러나듯 이는 어디까지나 노력의 결과였던 것이다. 두 설화 모두 신의를 저버린 친구에 대한 응징이 오직 과거급제를 통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조)는 (임)에 비해 자기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사건해결을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진 셈이다.

㉔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타인이 발굴하여 급제시키는 이야기다. 인물과 사건의 설정에 있어 (임)에서의 타인은 곧 '왕'이다. 그는 別科의 답안이 '학'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주인공이 "학치"라고 답하는 바람에 부득이 낙방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뒤 어떤 선비가 "학치"는 학의 사투리라 대답하니 다시 그를 불러서 합격시키는 우여곡절을 보인다. 이에 반해 (조)에서의 타인은 다름 아닌 '박문수'이다. 그는 주인공의 지혜를 믿었기에 천거만 했을 뿐이며, 그 다음 단계로 임금이 직접 시험을 치른 뒤 벼슬이 주어진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답안을 알려 주어 등용하는 행위는, 그 의도가 어떻든 결국 또 다른 부정행위가 되는 까닭에 (임)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인공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인재의 등용이 타당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청중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개를 가져 온 것이다.

㉕는 최치원이 중국 황제가 보낸 석함 속의 달걀을 알아맞히는 이야기다. (임)에서는 이를 '파경노'의 결연담과 연결지어 최치원의 소년시절에 행해진 사건으로 본 데 비해, (조)는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명성을 날리다 모함을 받아 유배된 청년기에 행해진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함 속의 물건을 맞히는 부분도 (임)은 최치원이 "團團石函裏 半白半黃金 夜夜知時鳴 含情未吐音"이라는 시를 바로 짓는 것으로 설정하여 최치원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에 초점을 맞

춘 반면, (조)는 최치원의 논리적 추리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걸을 보고 안의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본디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고 했으니 이는 천지의 원리이다. 네모난 괘 속에는 둥근 물건을 넣어야 리치에 맞느니라. ㉡ 돌팍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돌팍속에 있는 물건은 가벼운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짜 넣은 것도 필경에는 가벼운 것이리라. 게다가 흔들어도 소리가 없으니 깨어지지 않게 잘 짜서 돌팍에 꼭 맞춰 놓은 것이 분명하구나. ㉢ 왕궁에까지 오자면 10여 일이 걸릴 것이요, 돌아가자면 또 10여 일이 걸릴 것인즉”. 이렇게 빈틈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최치원은 “옳지! 그것밖에 없구나.”하며 붓을 들어 술을 써 내려갔다.

㉠에서 우주의 이치를 원용하여 둥근 물건임을 알고, ㉡의 사고과정을 거쳐 가볍고 깨어지는 계란의 존재를 확신한 뒤, ㉢에서는 계란의 부화기간까지 계산하여 병아리의 존재를 시로 읊조리게 되는 등 비교적 이치에 맞도록 하려는 논리적 추리과정을 보인다. 결국 소년 최치원의 신이성과 비범성에 의한 사건 해결 등 초경험적 서사구조 대신에 청년 최치원의 논리적 추리 능력이라는 자력해결의 합리적 서사구조가 되게 변개한 것이다.

㉡와 ㉢의 (조)는 수수께끼담을 활용한 서사구조의 변개를 보인 것이다. 수수께끼는 묻는 사람(the riddler)과 답하는 사람(the riddlee)의 쌍방이 참여하는 일종의 언어유희로, 특히 중국 조선족에게 있어 수수께끼는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형상적 감수력과 창조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실천적 교육수단이었다.³⁵⁾ 그 결과 조선족 설화에는 수수께끼가 상황설정-문제해결의 정점이자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이야기가 많이 전하는데, ㉡는 이야기 자체가 수수께끼담으로서 수수께끼의 과제 제시와 과제 해결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 또한, ㉢ 역시 천거자 박문수로부터 ① “노루의 심장이 몇 근인가?” ② “노루알을 얻어 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며, 왕으로부터는 “갓난 새새끼가 무슨 새인가?”라는 수수께끼식 질문을 받고, 이들 각각에 대해 재치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결국 (조)에 있어 수수께끼 풀이는 문제의 자력해결을 상징하는 대표적

35) 장권표, 앞의 책, 297~298쪽.

언술행위가 되고 있는 셈이다.

④는 이웃 여자를 탐낸 남자가 그녀의 남편을 피어 몰래 죽이고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남자가 무심코 던진 자백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재혼 남편을 죽여 전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이다. 이들 이야기는 남편의 자백을 듣고 난 여인의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임)은 관가로 가서 남자를 죽여달라고 청원하여 제 삼자(관청)의 개입에 의한 징벌을 보임에 비해, (조)는 푸짐한 저녁상에 술까지 준비해 남자를 안심시킨 뒤 직접 식칼로 목을 베어 남편이 죽은 벼랑에서 제사지내고 자신도 水中孤魂이 되는 것으로 변개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편의 원수 갚은 열녀>(임.7, 333-335)와 <한 보람없다>(임.9-2, 271-272)는 모두 (임)과 같이 '官에 의한 징치'라는 타력해결을 보이는데, 특히 전자는 "남자의 친절을 고맙게 여겼다"고 하고선,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의 첩노릇을 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등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응징이라고 보기엔 남득이 가지 않는 행위가 펼쳐진다. 오히려 (조)에서의 자력해결이 여자의 울분에 값하는 응징의 참모습이라 하겠다.

어떤 사건이 등장인물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 자력 해결되는 방식으로의 변개를 많이 보이는 중국조선족 설화는 '비과학적이고 저속한 구전문학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혁명적 입장에 선 공산주의 문학관³⁶⁾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의식 내지는 이주하여 정착한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의 자립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형성되었던 것이다.

4.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의 변이양상과 의미를 서술 방식의 변모에 따른 구연 기능의 변이,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부가에 따른 서사 구조의 변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같은 논의를 위한 이론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필자는 중국 조선족 문헌정착설화 총 2180여 편과, 이에

36) 리동원, 『조선구전문학』(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10쪽.

대비코자 선정한 임석재 전집 소재의 설화 총 3410여 편을 바탕으로 210여종의 동일유형설화를 선정하고, 이 210여 종 유향화를 대비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1. 서술방식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중국 조선족 설화는 삽입가요 및 속담이 풍부히 활용됨으로써 연행성은 물론 의미 강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아왔다. 이를 항목 별로 살펴 보면,

① 중국 조선족 설화에는 본토 설화에 비해 삽입가요의 풍부한 활용을 들 수 있다. 이들 삽입가요는 서사 진행의 일익을 담당하고, 구연 현장의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적 교류를 나누는가 하면, 감정의 장면을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감대를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설화를 구연하면서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노래를 곁들여 가창함으로써 구연 현장의 일인주도적 평면성을 공동참여의 입체적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다.

② 중국 조선족 설화에는 유달리 많은 속담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속담을 그 기능에 따라 이야기 줄거리의 요소요소에 삽입된 경우와 특정 대목에 집중적으로 삽입 활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관념적 서술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제적 의미를 해석·강조하며, 이야기의 점층적 전개에 기여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후자는 특정 대목의 정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대목을 부각·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2. 중국 조선족은 이질적 문화 및 환경의 땅으로 천입해서 이루어진 이주민 집단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50여 년간을 공산주의의 정치 및 문화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생존을 유지해 오고 있기에, 그들의 설화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등장인물의 관계를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이라는 극단적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결말 역시 피지배계급의 처절한 패배 또는 지배계급에 대한 극단적 징치를 보이는 쪽으로 변개되는 등의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배계급의 횡포와 착취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적극적인 저항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설화에 침투된 결과라 하겠다.

② 중국으로 이주해 간 조선족들의 절대다수는 대부분이 빈농이었기에, 이들은 생존 공간 확보와 민족 존립 기반 조성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노동

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노동에 대한 이같은 중시 관념은 중국 공산당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조선족 설화는 기존의 '모방담'을 변개해 성실한 자의 성공과 불성실한 자의 실패를 대조해 보임으로써 노동 가치의 중시라는 이데올로기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③ 조선족 설화는 개인의 안락보다 집단의 행복을 상위 가치로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변개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개인주의를 당의 이념과 맞서는 반동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중국 공산당의 강령과도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중국 대륙의 소수민족으로서 타민족의 외압에 대한 민족적 귀속성과 민족 보존의 자아의식이 작용한 결과적 산물의 한 현상이라 하겠다.

④ 조선족 설화는 경험 현실에 바탕을 둔 사건 전개 및 해결방식으로서의 변개를 보인다. 이같은 경험현실적 논리는 자력해결이라는 서사구조로 작품에 구현되는데, 이는 비과학적인 구전문학을 제거 대상으로 삼는 공산주의 문학관 및 소수 이주민족으로서의 자립의식 함양 등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설화의 본질을 우리는 구비전승 및 그 집적으로 인한 적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설화는 이같은 성격을 잘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 예가 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 조선족 설화의 변이 양상을 살핀 이 논문은 그 입론적 가능성의 일단을 보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중국 조선족 설화에 대한 본질적 성격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